

제목: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은 아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십계명의 하나로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깊은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1) 하나님 _____과 지혜의 통로입니다.
- 2) 가장 가까운 이웃을 _____하는 믿음 생활의 실천입니다.
- 3)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화의 _____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 1,065.00
주일	\$ 330.00
합계	\$ 1,395.00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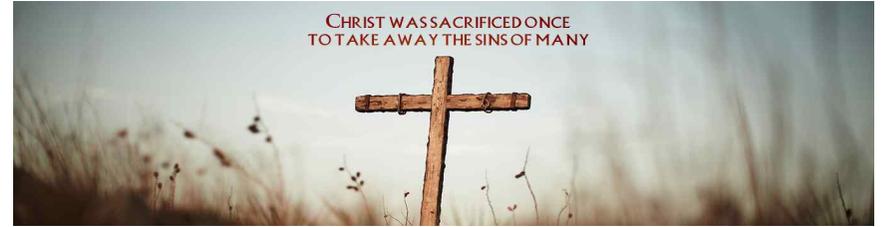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에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Exodus 20: 12절 구약 112 페이지 Presider
-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김성민 목사
Message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꼰대”의 깨달음)

사람은 모두 새로워지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있다. 특별히 자녀들은 지나간 부모 세대를 닮고 싶지 않아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의 세대를 보면 늘 새롭다. 내가 이전에 하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세상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 하고들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 볼 때에 내가 아직 “영감(늙은이)”은 아닌 것 같고 “꼰대” 행렬에 벌써 걸어가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이 계시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생각 하니 많이 부끄럽기 만 하다. 나도 나의 자녀들 이상으로 이전 세대를 뒤로하고 앞으로 만 나아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 세대보다 더 뛰어나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은 그저 “꼰대”일 뿐이다. 결국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을 똑같이 되풀이 하며 살고 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새롭게 된 것도 없다.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전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이 있다. 믿음 생활이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목사요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일이다. 새로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부모를 떠나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이전에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점점 기억을 되살리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던 나이가 더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인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라고 하신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계명의 하나로 두셨을까?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부모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이다.

지금은 “꼰대”로 있지만 시간이 더 흘러 자녀들이 나의 나이가 되어 또 다른 꼰대가 되었을 때에 지금 내가 깨달은 그것을 깨달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 그들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행동으로 삶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고 하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고마울 뿐이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대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크게 보인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박수와 포옹을 드리고 싶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2021년에는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5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5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모임

- | | | |
|----|-----|---------|
| 5월 | 2일 | 어린이 주일 |
| 5월 | 9일 | 아버지 주일 |
| 5월 | 23일 | 성령 강림주일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